

대중문화에 대한 성경적 접근

-구약을 중심으로-

문용식(충신대학교 국어학)

1. 서론

대중이 즐기는 문화를 어떻게 변혁시켜야 할까?1) 거기에 대한 대안이 기독교 학문에서 부재한 편이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하면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준거들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틀이 있다면 상이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초문화적인 준거들이 성경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신적 계시로서 어떤 특정한 문화를 초월한 선형적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2)

본고는 초문화적 준거들을 탐구하기 위해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문화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대되는 효과는 성경에 나타난 문화 현상을 살펴봄으로 문화에 대한 바른 시각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고는 대중문화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종의 문화에 대한 문화가 구약에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전제 아래 먼저 1) 저주 받은 종의 문화, 2) 말씀의 종의 문화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두 문화의 길항 관계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구현되고 있으며 관통하고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신약까지 살펴보지 못해 시론적인 성격의 글임을 먼저 밝힌다.

2. 두 종류의 종의 문화

구약 성경은 저주받은 종들의 종의 문화와 하나님의 종의 문화로 구분된다. 이 두 문화는 거부와 통합의 양상을 보이면서 문화적 변용이 나타난다. 문화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타난 저주받은 종들의 종의 문화를 살펴본다.

2.1. 대중의 문화 - 저주받은 종들의 종의 문화

성경에 나타난 저주받은 종의 문화는 ‘가인-함-니므롯’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문화로 나타난다. 성경의 ‘이름 짓기’는 단순히 어떤 사물의 기호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이름에 사실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정서까지도 담는 상징 활동이다. 따라서 성경 저자가 지은 인명이나 지명 등은 그들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형제를 살해한 가인은 ‘창’이란 뜻이고 그는 첫 아들을 ‘에녹’이라 이름 짓고 성을 건축하는데 에녹은 ‘시작’ 혹은 ‘개벽’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자신의 아성을 건축한다. 가인 후예들의 죄된 문화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라멕(힘센 자 4:18), 아다(꾸민 자 4:19), 쉴라(알랑거리는 자 4:19)’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멕은 ‘검가’ 혹은 ‘복수가’를 부른 인물로 조그마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명을 빼앗는 폭력적인 인물이고, 그의 아내 아다와 쉴라는 아름다운 얼굴과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세속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타락상을 대변하는 이름이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 세운 성에는 많은 후손이 태어나고 문화가 꽃피운다. 농사는 야발로(4:20), 음악과 예술은 유발로(21), 기계는 두발가인(22)으로, 법은 라멕(23-24)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화는 근본적으로 문화의 창시자 “여호와 앞을 떠나”(4:16) 세운 것이므로, 그 문화에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없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성격을 “돌을 새기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단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출 20:25)”는 언술로 확인할 수 있다.

성경 저자는 ‘가인과 라멕’의 비교를 통하여 죄악된 문화가 점층적으로 더욱 심화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라멕은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와 유발이 만든 악기를 양손에 각각 들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복수 금지법을 비웃는다. 여기서 우리는 라멕의 증오와 복수는 하나님이

1)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대중이라는 개념은 매스 컬처(mass culture)의 개념이 아니고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정득실 역, 윌리엄 라킨, 《문화와 성경 해석학》, 생명의 말씀사, 2000, p. 253.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홍포성의 극치를 볼 수 있다. 라멕은 하나님을 비롯하여 무신문화(無神文化)를³⁾ 만들어 간다.

이들의 문화는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한 함으로 연결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9:25)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가나안 일족은 지금의 가자에서부터 사해변의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는 강력한 영토를 확보한다. 그리고 함의 막내아들 구스의 동생 미스라임은 마침내 블레셋(페르시아)인의 조상이 된다.

저주받은 함⁴⁾의 자손 가운데 구스의 막내아들 니므롯⁵⁾은 “우리는 반역하리라”는 그의 이름에서 보듯 가인과 라멕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을 건설한다. 니므롯은 백성의 자유를 잔혹하게 압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최초의 군주로 나타난다. 성경에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묘사되며, 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노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술과 과학을 창조하며 군대를 일으키고 전차를 만들어 스스로 왕국을 건설한다. 니므롯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니므롯은 뛰어난 건축자로서⁶⁾ 시날 땅을 정복하여 바벨, 에렉(Erech), 악갓(Accad), 갈레(Calneh) 등의 성읍을 세운 후, 계속 북쪽으로 나아가 앗수르를 침략하여 니느웨, 르호보달, 갈라, 레센 등의 큰 성읍을 세운다(창10:11).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이룬 것이다.

니므롯이 도시를 세운 시날 땅은 우상과 범죄의 땅이다. 약속위반이라는 아간의 무서운 죄를 야기한 것도 시날산의 물품이며(수 7장), 느브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을 섬기는데 함께 둔 곳도 그곳이다(단 1:2).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바벨론이란 이름 대신에 시날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곳이 약탈과 침략의 땅임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시날은 최악의 도성이다(스 5:5-11).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 ‘바벨’은 땅 위에서 다시는 흠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이름으로 결속하자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속을 뜻한다. 인간에 의해 세워지고, 다른 어떤 개입도 힘도 배제된 도시, 바벨은 인간이 스스로 자연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바벨은 정복에 대한 기념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그들이 세운 도시는 에덴을 창조하려는 행위⁷⁾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이 세운 바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엘룰(Jacques Ellul)은 바벨이 혼잡의 문으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여러 언어로서 문화가 아니라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자기도취의 오만은 인간들 사이에 의사불통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인간의 말은 ‘의미 없는 허튼 소리’가 되고 말았다.⁸⁾

이상에서 보듯, 저주받은 종들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술과 과학을 창조하며 군대를 일으키고 전차를 만들어 스스로 왕국을 건설한다.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목적은 저주로부터의 도피이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과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단을 위하여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학정을 자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 저자의 주제론적 의도가 ‘저주받은 종들이 만든 문화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힘의 문화로서 잔인한 폭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2. 대중의 문화에 대한 거리 두기 - 말씀의 종의 문화

성경의 저자는 저주받은 종의 문화를 ‘가인-함-니므롯’으로 연결시키는 한편, 말씀의 종의 문화를 ‘아브라함-모세’를 통해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3) 조신권, 《재미있고 신나는, 성서의 세계》, 아가페문화사, 1999, p. 43.

4)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5) 창 10:6-8.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위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기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결이라.

6) 창10:10-11.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7) 조신권, 앞의 책, p. 58.

8) 자크 엘룰, 《도시의 의미》, 로고스, 1990, p. 43.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저주받은 종들이 세운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다. 도시는 힘의 상징으로 최악이 구조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시에서 떠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창 12:1)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셈 족의 후손인 데라는 우르라고 하는 인류 문화를 최초로 밝혔던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에 살았다. 즉 이곳은 도시 교통이 발달하여 무역이 성행하였으며, 문자가 발달하여 엄청난 서적이 있고 다신교와 범신론의 종교와 철학, 태양과 달을 숭상하는 이교도의 도시이다. 이어서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란은 대상로의 중심지요,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이교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교 문화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구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결과, 땅에서 신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학적 프로그램을 읽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에 대한 부름이며, 그것을 준행하면 도시문화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저주의 종들이 만든 도시 문화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여섯 가지 상징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의 문화를 탁월하게 보여준다. ‘별, 티끌, 제단, 기둥, 나무, 그리고 우물’이다. 이것은 도시의 문명과는 다른 자연물과 관련된 것이며, 별과 티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백성이 언젠가 땅을 덮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⁹⁾ 족장들은 영적인 자연분인 우물을 파서 이방인에게 제공하고, 세겜, 쾰엘, 그리고 헤브론(창 12:6-8:13:18)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이용하여 노천성소 동산을 만들었다. 이처럼 가나안의 예비 정복자인 족장들은 문화적 정복에 앞서 돌기둥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하셨는가? 성경 저자는 이 점을 독자들에게 전망할 수 있도록 모세의 어릴 때의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모세는 세속 문화를 모두 배운 최고의 엘리트지만 그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히브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수용한다.

이상에서 보듯 아브라함과 모세의 여행은 결국 세속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탐색담이다. 따라서 이들의 여행에는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 인격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 백성아, 바벨론을 떠나라” 이것이 성경의 외침이다. 롯의 가족은 도시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인자를 얻었다.(창 19:16)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렘 50:2,8)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계 18:2, 4) 이와 같이 도시를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항상 동시대를 뒤집어 인식하고 탐색한다.¹⁰⁾

우리는 두 영웅의 행적을 통해 문화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세속 문화에서 탈출하여 거리 두기를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땅에서 충실하게 일하며 다스려라.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예언자적 속성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문화적 태도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된 문화를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문화적 정체성 확립 - 거부와 통합

말씀의 종의 문화는 출애굽을 하면서 주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적 체제, 종교적 우상 등등의 잡다한 가치체계와의 투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투쟁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에 거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앞으로 거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한다(레 18:3)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신 진정한 법을 자각하고

9) 이동수·정연해 역, 제임스 B. 조르단, 《새로운 시작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로고스, 2002, p. 263.

10) 현길언, 《성경과 문학》, 한양대출판부, 2002, p. 67.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문화적 변용을 시도하는 데 이 때는 이스라엘 자체 내의 내부적 투쟁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애굽이라는 외부 문화와의 투쟁 양상과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 변용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외부 문화와의 투쟁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적 체제, 종교적 우상 등등의 잡다한 가치체계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언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방의 관습과 혼합된 문화를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 윤리는 그 이웃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을 일곱 번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3, 24, 26, 27, 29, 30). 성경은 성 윤리가 달라야 하는 토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표현하여 애굽에서 읽힌 관습을 주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결혼 제도는 모든 인간의 주춧돌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근본적으로 달리 성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애굽과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상은 성경과 성경 이외의 여러 자료에 잘 드러나고 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였고(창 20:12), 야곱은 두 자매와 결혼하였다.(창 29:18-30) 애굽의 왕가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했다. 동성연애(레 18:22)가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으며 수간(레 18:23)은 애굽, 가나안, 히타이트에 있었다. 애굽 동부에는 여인과 숫염소가 같이 동거하는 의식이 있었고, 우가릿 신화에는 신들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바알 제사장이 의식 중에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되었다.¹¹⁾ 그러나 출애굽 후 형제·자매간의 결혼과 한 남자와 자매들과의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레 18:6-18). 모세는 레위기 18장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성 윤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성적으로 죄를 범하면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레 20:10) 또 성경은 ‘죽이는 것’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여 성 윤리의 확립을 강력하게 언표하고 있다. 신명기 27장 20-23절에서는 “계모와 구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교합하는 자,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상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 윤리 규례를 제정하신 후 그것을 범했을 때 초래할 결과를 ‘안 된다’-‘죽인다’-‘저주를 받는다’고 점층적으로 강도 높게 말씀하신다.

또 모세는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숭배를 선동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네 동족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어떤 잡류 등이 일어날 때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성읍 거민을 죽이고 성읍 자체도 멸하여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언표하고 있다. 우상의 범위는 하늘, 땅, 땅 아래에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신교와 다신교와의 대립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시 106:20) 종교적인 주신제를 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인의 성결,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레 11), 생축 규례(레 17), 대상 규례(레 24), 서원 규례(레 27) 등 인간 삶의 모든 형태를 규례로 정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전략적 차원을 엿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에 나타난 혼합주의를 일상생활의 차원에까지 배격해야 할 것을 정밀하게 규례로 만들어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 성경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종들의 문화와의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풍부한 증거를 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 문화를 넘어 일상생활에까지 이교와는 다른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역설적으로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에 강렬한 코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11) 김정우, 위의 책, p. 616.

3.2. 축하와 축제 문화를 통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에 축제의 공통적인 뿌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민 28:16-29:40).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매년 주기를 가진 휴일/축제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주기적 종교 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축일들은 ‘성스러운 소집’ 또한 ‘임명받은 축제’들로 여겨졌고, 이 때에는 노동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축제의 제사의식을 통하여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갔다. 회중은 축제를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이스라엘은 형제애를 느끼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

구약 시대의 축제 의식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이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성막과 성전의 모든 비품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성막은 하늘의 원형(히 9:23-24)이며 땅의 모형으로 표현된다(대상 28:18-19).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모형이었으며(요 1:14),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다(계 21:1-3).¹²⁾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계약을 기억하며”(출 2:24)보다 더 큰 계약이라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받아들인다.¹³⁾ 이처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우주를 즐거워하고 우주 속의 자신의 위치를 기뻐하는 의미를 발견한다. 이들에게 축제는 정서적이고 영적이다.

이 축제들은 매년 하나님을 예루살렘성에 가서 찬양하도록 하는 순례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¹⁴⁾ 시편의 노래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불려지고 암송되었는데, 이 시편에서 찬양하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국가의 안전, 농사적 번영, 매일의 노동, 가족, 공동체의 교제 등등이다. 이런 종교적인 순례가 가져다주는 충만함과 집단적 찬양/축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축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온다.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 책에 귀를 기울이고(8:3),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며(8:12), 초막절에는 야외에서 캠핑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한다(8:17). 이들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였고, 이로써 그들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더 좋아졌을 것이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나무 잎으로 만든 지붕에 흙을 내어서 밤에 밤하늘과 별을 즐겼던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느헤미야 9장의 에스라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6)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얻어진 것이며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 장면은 축제가 가진 의미로 새롭게 음미해 볼 수 있다.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의 표명이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순종을 요청하는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 세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소유로서,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민족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¹⁵⁾

이상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정화하고 역사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는 데, 그 뿌리는 시내산 언약 체결과 연결되어 있다.

3.3. 내부적 투쟁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섬에 홀로 선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들도 사회적 삶의 방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구조나 예술,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적 변용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적 긴장을 엿볼 수 있고, 이 문화적 긴

12) 김정우, 위의 책, p. 569.

13) 김의원 역, 팔머 로버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p. 41.

14) 이양구 역,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종교풍습》, 나단, 1993, pp. 213-259를 참조할 것.

15) 김정우, 《구약통전 상》, 이레서원, 2002, pp. 534-550을 참조할 것.

장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내부적 투쟁은 정치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왕정의 수용과 왕정의 절대성을 거부하는 선지자들의 외부 문화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¹⁶⁾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에 두 가지 유혹을 느낀다. 하나는 가나안이 건설한 도시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정치체제인 왕정이다. 도시 문화와 왕정은 말씀의 종의 세계관과는 다른 것이다. 도시 문화와 전제 군주제인 왕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인간을 비인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대하다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약 3백년간 사사시대를 연다. 사사는 신정(神政)의 집행자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정치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이 사사가 하나님의 집행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치문화이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정치 문화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삿 8:22-23)얼마나 이상적인 정치 문화인가? 그러나 사무엘상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 좋은 제도를 쫓 피우지 못하고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자 가나안의 왕정을 수용한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기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가나안 문화에서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왕정을 본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거부하였지만(삼상 8:7) 이스라엘은 이웃 문화를 통합하여 신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 어쩌면 왕권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시 문화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파괴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수 6:26) 그러나 약 사백 년 후, 베델의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그러나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상 16:34)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재건하고자 시도한 자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저주이다.¹⁷⁾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 주는 유혹을 본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죽음까지 무릅쓰고 일을 행한다. 인간은 도시 문명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거세된 육체와 영혼 모두를 빼앗긴 채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스라엘의 재난의 시작은 솔로몬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솔로몬에게 건설자의 칭호를 보존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성과 하솔과 아래 벰호론과 자기에게 있는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왕상 9:15-19) 성경은 솔로몬의 첫 번째 불순종을 이곳에서 언급한다. 그는 노예제도 속에 그의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모세의 법을 잇고 ‘문 안에 사는 이방인들’(왕상 9:21)을 노예로 삼았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힘과 부에 대한 갈망에 굴복되어 도시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의 통치 말의 배교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믿음을 두었다. 우리는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바알랏, 벰호론 등으로 이름 지은 것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된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렘 11:13)

솔로몬은 이 밖에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모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된다. 즉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욕구에 따른 도전, 새로운 이상주의, 새로운 비전을 솔로몬이 도입함으로써 이스라엘 문화와 정체성은 위기에 몰린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위기를 여러 왕들을 통해 반복적이고 병렬적으로 보여준다.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남왕국 유다왕 르호보암은 수많은 도시를 건축하여 나라를 견고히 한 후 여호와와 율법을 버린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는다(대하 11:5-12:1). 그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는 간교한 군사정책으로 대체하다 성전을 약탈당하고 만다.

이상에서 보듯, 왕정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은 저주 받은 종의 문화에 동화된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동화에 강렬하게 반항한다. 선지자들은 왕권의 남용을 반대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발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라고 권면하며 백성을 책망한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선지자들은 주변 문화에 동

16) Lucien Legrand, *The Bible on Culture*, Mark New York, Orbis Books, 2000, p. 18.

17) BC. 885-874.

화되어 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예언적 항거를 하였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함 2세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시대였다. 무역은 번창하여 큰 집과 왕궁은 사치스러움으로 가득찼다. 카펫트가 있고, 상아로 꾸민 가구들이 있고, 흥청거리는 잔치는 열리고, 미술과 음악이 넘쳐났다. 나라는 평안하고 건강하며 예술적인 감각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아모스는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유한 계급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압제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 한 켤레를 주면 궁핍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을 내었다. 가난한 사람이 걸옷을 전당잡혀 추위에 떨어도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 그는 윤리적 타락을 목격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왕래하고, 나실인을 끌어다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궁궐 안에서 포악과 겁탈이 자행되고, 여자들은 남편에서 술을 사오라고 시키킨다. 그는 공식적인 의식의 위선을 꿰뚫어 본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아침마다 죄없는 짐승만 죽인다.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며 요란하게 떠들어 댄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

이와 같이 아모스는 왕정 뒤편의 세계를 보았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기·성회·번제·소제·희생의 화목제·노래소리·비파소리를 미워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나 곧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한다고 아모스는 외치고 있다.

4. 결론 : 탈문화(하나님 사랑의 문화)

우리는 저주받은 종의 문화와 말씀의 종의 문화로 나누어 각 문화적 특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살펴보고, 두 문화의 혼합 속에서 말씀의 종의 문화를 건설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였다.

저주 받은 종의 문화나 말씀의 종의 문화나 신학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파멸/회복’이라는 구조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회개-용서-사랑’이라는 구도에 속하느냐, 아니면 ‘심판-파멸’의 구도에 속하느냐는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다. 그 기준은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는 부름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해주시고 그를 더 큰 존재로 만드신다. 그래서 구원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다(애3:23). 그 구체적인 예를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로 살펴보자. 이들은 성폭행 당한 여동생 디나를 위해 보복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만(창 49:5-7), 레위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시므온 가계는 계속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다른 길을 걷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레위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출 32:26)는 말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27)라는 말을 듣고 3천 명을 죽였다. 레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술마시고 춤추며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거룩한 일을 위해 앞장 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4)라고 명명하며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 그 결과 말라기 2:4-6에서 하나님과 레위인이 맺은 언약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레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하신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 2:6)¹⁸⁾

반면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 1차 인구조사 때 오만 구천삼백 명(민 1:23)이었으나,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만 이천이백 명(민 26:14)으로 줄어들었다. 또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자 땅 분배에서도 유다의 영토에서 나뉘어지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성경은 저주받은 종들의 종의 문화를 건설한 백성에게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8) 김정우, 앞의 책 하, pp. 127-130.

하나님께서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의 속성을 미워하신 것이지 도시에 거주하는 거민 자체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니느웨는 전쟁 도시의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화 있을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케홀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굉굉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떼,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나훔 3:1-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한다(사10:16-19).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신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진 주민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 그 결과 그들은 도시에서 인간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들은 진정한 예언을 듣지 못하는 이교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아래에 죄우를 다시 분변하게 될 때 더 이상 악마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민족주의자이며 이기주의자인 요나는 당시의 유대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고래 뱃속에서의 연단과 박 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욘 4:5-11)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축도 아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을 파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보존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시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렬에 놓으면서 이 심판에 대해 감히 편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도시의 거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의 분리가 아니라 소멸과 재창조이다. 재창조에서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¹⁹⁾ 우리는 도시의 삶에 물질적으로 참여하고 도시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파괴 아닌 복지를, 그리고 우리의 복지가 아닌 도시의 복지를, 우리는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도시의 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를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행동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도시 사이의 영원한 경계선이다.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말씀의 종으로서, 용서 없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지자들처럼 기도해야 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잠 11:11)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한 세상 변혁의 문화적 드라마를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름의 소망을 바라보고 아모스처럼 문화 속에 담긴 죄성을 선포하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 구조가 지닌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 문화 내의 악한 요소를 예언자적 시각에 입각해서 선포하여 혼합주의적 문화를 골라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존재로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자연과 사람이 모두 깃들 수 있는 아름다운 우주를 재창조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제의 기쁨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19) 위의 책, 124면.